



“수능 수험생들 파이팅!”

‘FA 수험생’ 박찬호
홈피에 격려 메시지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러브콜을 기다리고 있는 박찬호(33·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박찬호는 14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anhopark61.com)에서 “그동안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코 앞에 다가온 수능에 몸과 마음이 조급해지고 긴장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이) 인생의 전부를 위해서가 아닌 중요한 시기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긴장된 마음을 좀 풀고 약간의 여유를 갖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젠가 저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경기하다 보니 마음의 기복과 갈등 등이 많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경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부상에 시달리면 지역 같은 고풋을 함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감마저 있었답니다. 꿈을 향한 노력은 끊임없지만 그래도 세상에 늘 당당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해 5년 6천500만달러의 FA 계약이 끝난 박찬호는 시즌 중 장 출혈 수술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금은 샌디에이고와 재계약이나 이적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수험생들을 배려한 이런 격려는 오히려 중요한 평가와 선택을 앞둔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말일 수 있는 것이다.

맨U ‘악동’ 루니, 이번엔 사진기자 폭행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악동’ 웨인 루니(21·잉글랜드)가 사진기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니는 지난 15일 맨체스터 유니언에 있는 파나시아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프리랜서로 일하는 한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맨체스터 경찰서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루니는 당시 세계복싱기구(WBO) 슈퍼미들급 웹파운 조 칼라체를 만나 타이를 빙어 죽하파티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루니가 자신을 찍으려 한 사진기자를 어떻게 폭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진기자가 진단서를 떼오자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루니의 폭행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한 대학생과 시비가 불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연예사병’ 지성, 국군방송 DJ로



연예사병으로 복무 중인 텔런트 지성(본명 곽태근·상병)이 DJ로 팬들과 만나고 있다.

지성 소속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부터 국군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FM 101.1MHz) DJ를 맡아 파트너인 손선에 중위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DJ로 활동해 왔던 흥경인의 후임이다.

지성은 “처음 경험하는 라디오 DJ 이지만 과거 TV 음악프로그램 MC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전 장병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제갈양웅씨 막내 대종(광주일보 광고부 부장)군 이경수씨 막내 은재양=19일(일) 낮 12시40분 청기와세팅문화센터 2층 다이아몬드홀.

▲김우영(자영업)씨 차남 가원(한국기술연구조합)군 김병웅(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씨 딸 혜진양=18일(토) 오전 11시30분 메리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차동복씨 차남 재영(서울 한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군 김순철(광주 남구청 세무과장)씨 차녀 옥희양=18일(토) 오후 1시 에벌루션 웨딩컨벤션 1층.

▲이우정(동일종합건설 대표)씨 차남 정규군 오왕교(남능건설 대표)씨 장녀 영정양=19일(일) 낮 12시 30분 신양파크호텔.

▲정찬균(오광건설 대표)씨 장남 기적군 박남칠씨 장녀 나영양=19일(일) 오전 11시 경북궁��당컨벤션 2층 고운홀.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비둘기기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에 약奔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세광·전남 한양대 동문회(회장 박종환 서원전기 대표) 일원모임=17일(금) 낮 12시 신정. 011-625-4321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동신대 해설대회 ‘대상’ 수상 화순 운주시 문화해설사 박상순 씨



그녀를 만나면 ‘천불천탑 신비’ 술술

비슷한 내용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교과서식 역사가 되기도 하고, 옛날 얘기가 되기도 한다. 뜻밖의 의미와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도 마찬가지다.

박상순(여·40·광주시 서구 능성동)씨는 화순군 운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문화 유산 해설사다.

화순군 홈페이지에는 박씨를 칭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단순한 관광객들이 박씨가 풀어낸 이야기 보따리를 듣고 동료들을 데리고 세 번씩이나 찾아올 정도다.

박씨는 “어린이에게는 옛날 얘기 해주듯, 현재 생활과 접목시켜 삶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성인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유수같은 말솜씨에 다양한 관광객들을 위한 ‘눈높이 가이드’는 기본이다. 맞춤식 해설이 필요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 2002년 8월 문화유산 해설사 자격증을 판 뒤 운주시에서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지난 1997년 호주로 배낭 여행을 갔다가 석굴암 등 국내 문화 유산을 묻는 외국인에게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이 부끄러워 뒤늦게 시작

했는데 벌써 5년째다.

일주일에 3~4번, 5년째 해설을 해오면서 기

억에 넘는 사람들, 얘기거리도 많다.

특히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설을 하면서 운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화순군 홈페이지나 메일로 칭찬글이나 해설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줄 때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한다.

계층간 맞춤…‘눈높이 가이드’

내·외국인 관광객들 ‘호평’

매주 3~4번, 5년째 해설

“남도 문화유산 지킴이 되고파”

해설사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운주시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운주시에서 해설을 맡기 시작한 뒤 관광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 문화 서적을 뛰어넘는 일이 많아졌다.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배경은 물론 당시 석공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와불(臥佛), 석탑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미까지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까. 최근 동신대 주최로 열린 문화유산 해설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토대로 운주시가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박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와 문화에 대해서는 내면 깊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관광객들이 나를 통해 운주시를 보고 느낀다는 생각으로 남도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사이클·보트·카누·스키·도보 ‘근육의 힘’만으로 세계일주



캐나다 탐험가 팀 하비

894일만에 ‘환경지키기’ 대장정

캐나다의 한 탐험가가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이클과 보트, 카누, 스키, 도보 등으로 894일만에 지구 한바퀴를 완주했다.

팀 하비(28)는 2004년 6월1일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근육의 힘만으로 지구를 도는 탐험에 나섰다.

밴쿠버를 출발한 하비는 자전거를 타고 북쪽으로 항해 캐나다 유콘, 미국 알래스카를 거쳐 64일만에 베링해에 도착했다. 도중에 산불을 만나 카누를 타고 15일간 유콘 강을 가로지르기도 했다.

노젓는 보트를 장만한 그는 32일간 400여km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베링해 힘을 건넜다. 이 소식은 당시 미국과 캐나다 언론을 통해 상세히 전해졌다.

그는 러시아 카마차 반도 해안에서

부터 도보로 600km를 걸어 11월초 사할린 아나디르에 도착했다. 여기서 동상을 치료하며 계율을 보낸 그는 2005년 2월 다시 사이클을 타고 동토의 시베리아 횡단에 들어갔다.

1년 3개월에 걸친 긴 역주 끝에 2005년 5월 모스크바에 달릴 수 있었다. 하비는 그 사이 탐험 기록을 인터넷과 위성통신을 통해 정기적으로 밴쿠버 선에 기고했다.

하루 평균 150km씩 사이클로 달린 그는 유럽을 가로질러 같은 해 10월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했다.

여기서 다시 전장 8m짜리 보트를 타고 바람과 노젓기의 의지에 의지해 대서양을 건넜다. 아프리카 서북해안의 모로코와 카나리 군도를 거쳐 베네수엘라까지 항해하는 데 38일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미주 대륙을 밟은 그는 힘준한 남미 우림을 도보와 자전거로 통과한 뒤 파나마, 멕시코, 미국을 거쳐 지난 12일 밴쿠버에 귀환했다. 4만2천km의 대장정이었다.

‘영입하고픈 CEO’ 1위 안철수씨

리더십센터 조사…2위 이명박, 3위 이건희順



리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의 회사에 CEO로 영입하고 싶은 리더’로 안철수씨(25%)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2위와 3위는 각각 이명박 전 서울시장(17%),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6%)이 차지했다.

올해 국위선양에 가장 이바지한 인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36%)이 꼽혔으며 이건희 회장(33%)이 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또 현재 한국을 위해 복제하고 싶은 리더로 이순신 장군

(39%), 맹꽁(21%) 등을 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되는 분야와 리더십이 가장 발휘되어야 할 분야로는 각각 경제(28%), 정치(73%)를 꼽았다.

김기호 광주농협조합장

배추소비촉진 캠페인 나서

김기호 광주농협조합장은 임직원 20여명과 함께 배추 소비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곡지점 등에 서 배추 3천포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재일교포 하정웅씨, 24일 ‘염원의 미술’ 출판기념회

개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염원이 담겨 있다.

출판기념회는 한일문화교류센터 한국본부의 ‘2006 한일문화교류의 밤’ 오프닝 행사로 치러지며, 일본인 오타 마치야씨가 한일 우호에 대해 쓴 책 ‘친구야 놀자’ 한국어판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문의 02-310-7720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상=발인 15일(수) 금호장례식장 101호. 227-4385

▲김해식씨 별세 희민·희욱·희삼·선자·선희·선미씨 부친상 서영일·차상우·정원곤씨 빙부상=발인 15일(수)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250-4407

▲백유인(죽한미소핑 회장)씨 별세 형종(죽한미소핑 대표이사)·정자·숙자·영자·명자·인숙씨 부친상 일현(중앙일보 기자)씨 조부상 배종길(한미실업 회장)·전 재경 광주서 중 총동창회장)·이근우(변호사·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임성균(재경부 국제심판관)·송영천(부산고법 부장판사)씨 빙부상=발인 15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515-4488

▲박언례씨 별세 윤영균·주립·영신씨 부친상 흥석종·문형준씨 빙부상=발인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101호. 521-1100

모임

▲DIY 용일이네 기구공방 수강생 모집=DIY가구, 생활가구, 나무소재 소품 제작 수강생 모집. 문의 943-2956

▲북성중 제 19회 동창회(회장 김현우) 월례회=19일(일) 오후 10시